

보도시점 : 2025. 1. 20.(월) 06:00 이후(1.20.(월) 석간) / 배포 : 2025. 1. 17.(금)

유가족분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담조직을 출범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.

- 20일부터 “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” 출범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1월 20일(월) 「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(이하 지원단)」을 정식 출범한다.

○ 지원단은 국토부·행안부·복지부·지자체(전남, 광주, 무안)·공항공사 등 30여명(1단 3개과*)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(피해지역 포함)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.

* 지원단장 및 3개과(기획총괄과, 피해보상지원과, 유가족지원과)로 구성, 현장사무소 별도

□ 박정수 12.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

○ “그간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다면,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”라며,

○ “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 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완국 (044-201-5452)
		담당자	서기관	박선용 (044-201-5453)